

■ 아주대 **金 翥** 총장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필요”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 / 본지 편집위원)
■ 일시 : 1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아주대 총장실

“과학기술은 올바른 가치기준을 제공하는 합리적 사고, 무한경쟁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다원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 제고가 저변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과학기술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 우선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이 인류문명 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인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산업혁명으로부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진보는 우리 삶의 패턴을 풍요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고 더욱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은 과학기술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올바른 가치기준을 제공하는 합리적 사고, 무한경쟁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다원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 제고가 그 저변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과학기술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아주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기본 운영방침은.

학생 전공선택자유권 크게 확대

아주대의 교육이념은 인간존중(人間尊重), 실사구시(實事求是), 세계일가(世界一家)입니다. 이중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세계화를 통해 대학의 성장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면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대의 기본 철학은 우리의 고객인 학생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중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운영방침은 자칫 교육의 중심이 교수에서 학생으로 이동한다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중심교육은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유권이 크게 확대되고, 학교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

지만 교수들이 교육관련 틀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 **아주대학교의 21세기 비전은 무엇입니까? 특히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비전은.**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대학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동시에 특성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편제와 교과과정을 재조정하고 연구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아주대 발전의 1단계(지난 4~5년)는 신입생 선발을 포함해서 학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체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아주대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은 모든 대학의 과학기술 발전의 틀에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과학기술 발전방향이 국가와 세계의 발전전략 틀에서 찾아야 한다면 아주대는 특정분야에 역점을 두어 우리대학 고유의 영역을 설정하고 가용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은 남이 한다해서 그저 따라 간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단계로 IT와 BT 그리고 BIT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기술에 바탕을 두고 실용화 연구를 지향할 것입니다.



권을 강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진출이 용이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연스럽게 기초와 순수학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물론 기초 및 순수학문 분야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분야의 학문적 매력과 더불어 발전 비전을 통해 학생들이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도 학부제를 5년 정도 시행한 2000학년도부터 그 동안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별로 이수학점 조정이나 선수과목제도 도입, 전공 선택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과학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대학의 기초 과학 발전 뿐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원론적인 주장 같지만 창의적 사고능력의 배양이 소신입니다. 이는 과학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교육의 기본철학이기도 하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익히는 자세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계적인 교과과정 운영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도록 강의 매체의 개발, 실험 메뉴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아주대는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아주대학교는 대우그룹을 일군 김우중씨와 긴밀한 관**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인해서 순수학문 분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아주대는 우리나라 학부제의 효시

아주대는 95년부터 전면적인 학부제를 실시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학 중 학부제의 효시인 셈입니다. 그동안 아주대 학부제가 많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를 지원한 우수 학생 중 상당수가 학부제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이 설문 결과입니다. 아주대 학부제가 다른 대학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들의 열성과 행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기본편제가 학부제 운영이 가능한 규모이고 전체 학생들의 수준이 고르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의 이유입니다. 학부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의 경우 상당수는 학부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부제 도입은 잘 아시겠지만 전공이나 학과를 입학하면서 선택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

계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압니다. 대우사태로 해서 학사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많은 사립대학들이 재단 설립자가 대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립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대는 상당히 독특한 대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는 김우중회장이 재단을 설립했고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대학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니다. 지난날의 일이지는 하지만 저희 대학이 96년경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시 세계 경영을 표방한 대우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여 홍보전략상 재단 설립자인 김회장을 활용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홍보전략은 대학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컸습니니다. 아마도 이런 당시의 홍보 결과가 오늘 많은 사람들로 부터 아주대와 대우그룹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아주대와 대우그룹 해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김우중 설립자의 꾀직한 재정지원으로 한번도 기금모금에 대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대학도 많이 성장한 만큼 이를 토대로 다양한 재정 지원처를 대상으로 기금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평화와 삶의 질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어 이른바 반과학운동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나아가서 과학기술과 인문과학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요?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은 유기적 관계

과학과 기술에 대해 찬반(Pro and Con)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문제의 발단은 과학기술자의 윤리(Ethics)상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학제간 보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보다 극대화해 가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내 집 드나들듯 교류가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요즘

과학기술계에서 '과학문화'란 말을 쓰고 있는데 문화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문화과학'이란 말을 사용하는 시대가 곧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성·전문성을 국정에 도입하는 국정운영의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지식·정보혁명의 시대로 과학기술 자산이 국력의 기반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에서도 같이 과학기술을 국정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개편 및 운용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의 신설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기술력 제고'를 가속화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미래 선진 복지국가에 조기 진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 새로운 기술의 도전적 개발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첨단기술의 개발에서도 경제적 지원능력, 인적 자원의 확실한 개발을 고려하면서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무조건적인 첨단기술개발 위주는 곤란합니다. 국제기술협력 보안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와 과학기술계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초과학 투자를 대폭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개발은 실용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튼튼한 기초과학의 저변 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첨단 기술(6T)의 발전을 통해서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이루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산기술의 발전에도 무게를 두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생산력 제고를 위한 미래 원천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에서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학저널 리스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학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서도 과학기술계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①7